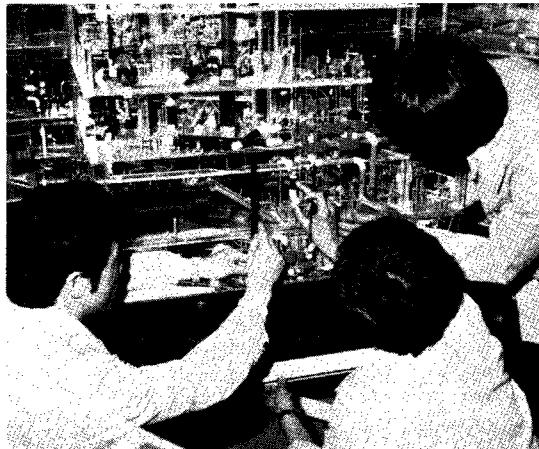


電力技術 完全自立을



지난 1986年은 추진중인 原子力發電所 建設事業의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량은 줄어들었으나, 장기적인 “電力技術의 完全自立” 目標를 향해 모든 計劃事業을 원활히 수행한 한 해였다. 특히, 회사발전의 디딤돌이 될 原子力發電所 11, 12號機事業의 착수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준비작업을 충실히 추진한 한편, 각종 電算프로그램의 개발도입을 통한 業務電算化의 지속적 추진, 目標管理制度·提案制度의 活性화 등 경영관리면에서도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며, 여의도에서 영동의 韓國重工業(株) 건물로 社屋을 이전함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전 부서가 한 사옥에 모여 일하는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능력을 바탕으로 韓國電力技術(株)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

련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國內原子力發電所 建設史上 최초로 엔지니어링部門의 主契約者가 되어 原電 11, 12號機事業을 시작하는 첫 해로서 電力技術의 完全自立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7年度 經營方針은 첫째 新規原電의 本格着手, 둘째 技術自立体制確立, 셋째 經營內實基盤構築으로 質·量面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經營方針의 推進方向과 力點事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 연초에 계약예정인 新規原電－原電11, 12號機－은 최초로 수행하는 大型主契約事業인 만큼 이의 遂行体制를 신속히 정비하고 事業主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共同遂行A/E社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취약한 設計·經驗技術의 体系的 習得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링全般事業(Full Scope Engineering)能力을 확충할 계획이다.

11, 12號機事業의 ’87年度 主要推進役務는 전년도에 G/C Cue專用電算機를 도입, 그 능력이倍加된 事業管理部門은 각종 基本計劃, 節次書, 指針書 등을 작성하여 그 基本體系를 정립할 것이며, 設計基準書作成과 敷地平面計劃圖, 冷却水系統基本設計, 主要系統 基本圖面, 一般機器配置圖面 등의 基本設計役務의 수행 및 라이너플레이트鋼板仕樣書, 凝縮機仕樣書 등의 機資

爲한 大轉換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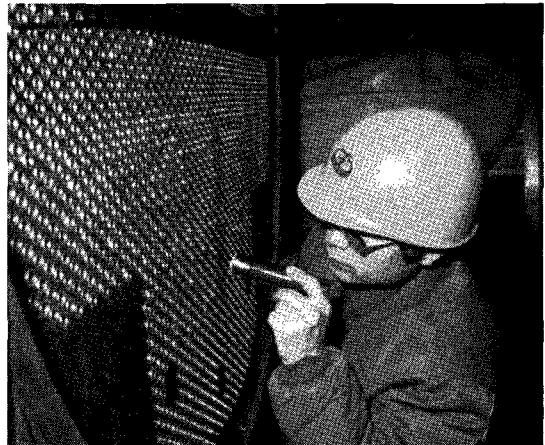
材仕様書 作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둘째, 技術自立体制確立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技術自立体系를 新規原電事業과 동시에 추진될 技術傳受事業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하여核心技術을 철저히 흡수하고, 아울러 專門職(Specialist)의 개발·양성에 노력하여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同社의 技術自立推進方案은 原子力 11, 12號機 技術役務와 原電設計標準化事業 등 용역사업수행을 통한 經驗技術의 습득, 電算프로그램의 도입, 기술자료 확보 및 교육훈련 등의 技術傳受와 自体技術開發事業으로 대별되며, 그중事業·經驗技術과 傳受技術의 소화, 개량,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는 自体技術開發事業은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약 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셋째, 經營內實基盤造成을 위하여 人的資源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企業性을 높일 뿐만 아니라, 國際化趨勢에 대비하여 海外市場을 적극 개척할 것이다.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平生教育을 구현키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繼續教育制度(C.E.P. : Continuing Education Program)는 이미 개설중인 碩士待遇課程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직원 개개인의 경력형성과정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여 회사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기하는 經歷開發制度(C.D.P. : Car-



eer Development Program)의 도입을 위하여 '87年度에는 專攻別 經歷進路모델 개발, 個人別 經歷開發計劃 반복수립, 評價技術 개발, 職務循環制度 기준설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海外市場開拓은 전년도 순수 소프트사업으로는 대형이라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 電力損失率減少用役(Loss Reduction Project)의 수주를 기폭제로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電算設備, 事務自動化機器 등의 확충에 약 19억원을 투입하여 업무와 사업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韓國電力技術(株)은 이같은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오늘도 국내외 현장에서 땀흘리며 技術自立을 향한 긍지와 사명감속에서 1987年度에도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